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글말교실 수강 소감문)

이름	최재호
전공	자동차공학과
학번	20213264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김건영교수님)

'글말교실'은 글쓰기 과목을 수강하며 단순히 성적을 잘 받고자 하는 마음에 '온국민' 알림을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공 과목에 비해 글쓰기 과목을 소홀히 하였고, 스스로 공학 계열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고 느꼈다. 또한 글을 쓰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성적과 연관이 되기에 좋은 글을 쓰는 데만 집중하며 큰 부담을 느꼈다. 그런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겼다.

담당 교수님은 김건영 교수님이 배정되었고,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나는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고 싶었으며 여러 피드백과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기에, 글쓰기 수업의 교수님과는 다른 교수님을 원했다. 김건영 교수님께서서는 직접 문자를 주시며 약속을 잡아주셨고, 글의 진행 상황을 보고 싶어 하셨기에 관련된 나의 자료를 보내드렸다. 자료를 보내면서도 2000자가 넘는 글을 교수님께서 모두 읽어주실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중간고사 직전이라 많이 바쁘실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뵈었다. 그러나 교수님은 내 긴 글을 모두 읽어주셨고, 이는 잘못 알고 있던 맞춤법을 수정해주시고, 많은 문장 속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평소 긴 문장을 쓰며 쉼표 사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수님께서서는 쉼표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알려주셨다. 그 순간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여러 번 읽어주신 내 글을 정작 나는 읽지 않고 좋은 성적만을 바란 점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그런 글을 여러 번 읽어주신 교수님께도 죄송함을 느꼈다. 이 과정이 교수님과 위의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고, 나 자신이 글쓰기 과목에 더욱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코칭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교수님께서서는 모든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주셨다. 단지 글을 완성 시켜주는 것이 아닌 글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기에 나는 스스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서는 글이 갖는 큰 문제점에 대해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다. 이를 통해 나는 글을 어떻게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소감문을 쓰며 이 프로그램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뻔했기에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바로 '대학은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교수님이나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를 찾아서 참여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수강하고자 한다. 대학은 나 자신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므로, 앞으로는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